

신체적 피해상황에서 본 사죄담화의 한일대조

—한일남녀대학생의 사용경향을 중심으로—

정 현 아*

(e-mail : nabinabi75@naver.com)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3. 결과와 분석 |
| 2. 연구 목적 및 방법 | 3.1. 결과 |
| 2.1. 연구 목적 | 3.2. 분석 |
| 2.2. 연구 방법 | 4. 나가기 |

키워드 : 身体的な被害状況(Physical damage situation), 韓日男女大学生(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Japan), 謝罪談話(Discourse of apology), 展開類型(Types of development), 會話(Discourse)

1. 들어가기

사죄행위는 사죄자가 피해자에게 해당행위(상황)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실성 조건(sincerity condition)을 전제로 한 태도를 표명하는(expressives) 언어행위이지만, 피해자가 받아들일 것을 기본적으로 표명하지 않으면 수습될 수 없는 언어행위이다. 또한 순수한 사죄행위의 피해상황은 크게 신체적, 물질적 또는 물리적, 정신적 상황으로 나눌 수 있고(近藤, 2002), 공통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죄자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의식하며 자각하는 것이 의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순수한 사죄행위 중에 특히 물질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연구(松原(2001), ボイクマン·宇佐美(2005), 大谷(2008·2013), 정현아(2019a, 2019b) 등)는 다수 있지만 신체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연구(정현아(2018a, 2018b), 안현정(2000))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정현아(2018a)는 신체적인 피해상황에서 한국남성과 한국여

*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사회언어학

성은 교섭담화와 핵담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일본남성과 일본여성은 핵담화와 연속핵담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차에 의한 차이점보다는 신체적인 피해상황이라는 공통적인 상황에 따른 특징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정현아(2018b)에서는 신체적인 피해상황에서 한국남녀는 주로 사죄표명, 상대확인, 달래기, 피해대처, 피해보상의 다양한 사죄관련 발화문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일본남녀는 주로 '사죄표명발화문'을 남성은 51%, 여성은 44% 사용하며 상대확인과 피해대처 등의 언어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 안현정(2000)은 상대방과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을 설정하여 앙케트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은 부딪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일본은 부딪힌 상태 및 강도에 초점을 맞추어 사죄표현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단위인 '담화'를 마이내드(1997)는 결속구조와 결속성을 가진 정리된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행동의 단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Halliday and Hasan(1976)는 결속성을 관계의 개념으로 하나의 항목과 다른 항목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특히 담화를 형식이 아닌 의미적(semantic)인 단위로 보았다. 다시 말해 결속성은 의미적인 단위를 가진 텍스트의 하나의 부분과 다른 하나의 부분사이에 존재하는 연대감(連帶感)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의 담화의 개념을 참고하여 분석항목을 설정하여 분석·고찰하였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2.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신체적인 피해상황¹⁾에서의 한일남녀대학생의 사죄담화의 특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전개유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대화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이와 같은 전개유형의 특징을 정성적으로 고찰한다. 이것을 통해 신체적인 피해상황에서 일어나는 사죄담화의 대인배려행동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1)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힌 상황으로 피사죄자가 사죄자의 신체에 상처 등을 입힌 상황을 의미한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대 한일남녀대학생 각 12팀의 사죄대화를 녹음하여 합계 48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²⁾. 수집한 48개의 대화 데이터는 宇佐美(2011)의 ‘기본적인 문자화의 원칙(Basic Transcription System for Japanese: BTSJ)’과 宇佐美(2007) ‘기본적인 문자화의 원칙 한국어판 (Basic Transcription System for Korean: BTKS)’로 문자화하였다. 이하의 <표1>은 롤·카드 내용이다.

<표1> 신체적인 피해상황에서의 사죄장면의 롤·카드 내용

사죄자의 롤·카드 내용	피사죄자의 롤·카드 내용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친구 손에 쏟고 말했다.	친구의 부주의로 인해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이 자신의 손에 쏟아지고 말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大谷(2008)를 참조하고 대화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죄담화를 구성하는 하위담화를 ‘전치담화’, ‘패닉담화’, ‘핵담화’, ‘연속핵담화’, ‘교섭담화’로 분류하였다. <표2>에 사죄담화의 하위분류 및 정의를 정리하였다.

<표2> 신체적인 피해상황에서의 사죄담화의 하위분류 및 정의

하위담화	정의
전치담화	사죄내용과 관계가 없는 담화로, 구체적인 사죄관련 대화가 나타나기 전에 전치(前置)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담화.
패닉담화	피해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담화.
핵담화	명확한 ‘사죄표현’의 상호작용 발화가 포함되어 있는 담화로, 사죄내용과 관계가 있는 화제에 대한 ‘사죄표현’의 상호작용 발화가 최소 1회에서 최대 3회 일어나는 담화.
연속핵담화	명확한 ‘사죄표현’의 상호작용 발화가 포함되어 있는 담화로, 사죄내용과 관계가 있는 화제에 대한 ‘사죄표현’의 상호작용 발화가 최소 4회에서 최대 13회까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담화.
교섭담화	‘핵담화’ 또는 ‘연속핵담화’의 전후에 나타나며, 명확한 ‘사죄표현’은 나타나지 않지만, 사죄내용과 관계된 화제에 대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담화.

2) 한일남녀대학생에 관한 정보 및 대화시간, 발화문수와 데이터 정보는 참고문헌에 있는 정현아(2018b)를 참조.

3. 결과와 분석

본 장에서는 먼저 사죄담화를 구성하는 하위담화의 추출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한일남녀대학생의 사죄담화의 전개유형과 대화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한다.

3.1. 결과

아래의 <표3>은 한일남녀대학생의 사죄담화를 구성하는 하위담화의 빈도와 비율이다. 전치담화와 패닉담화³⁾는 본 연구의 사죄장면 설정을 위한 내용으로 인해 한일남녀대학생에서 각각 1개씩 나타났다.

<표3> 신체적 피해상황에서의 사죄담화를 구성하는 하위담화의 추출결과⁴⁾

	KM	KF	JM	JF
전치담화	1(2.38)	1(2.70)	1(3.23)	1(3.70)
패닉담화	1(2.38)	1(2.70)	1(3.23)	1(3.70)
핵담화	19(45.24)	16(43.24)	8(25.81)	9(33.34)
연속핵담화	1(2.38)	4(10.82)	9(29.02)	7(25.92)
교섭담화	20(47.62)	15(40.54)	12(38.71)	9(33.34)
합계	42(100)	37(100)	31(100)	27(100)

()는 비율

KM은 교섭담화(47.62) > 핵담화(45.24) > 연속핵담화(2.38)순으로 나타났으며, KF는 핵담화(43.24) > 교섭담화(40.54) > 연속핵담화(10.82) 순으로 나타났다. KM과 KF는 주로 교섭담화와 핵담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연속핵담화는 KF가 KM에 비해 약간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었다.

JM은 교섭담화(38.71) > 연속핵담화(29.02) = 핵담화(25.81) 순으로 나타났으며, JF는 핵담화(33.34) = 교섭담화(33.34) > 연속핵담화(25.92) 순으로 나타났다. JM과 JF는 교섭담화, 핵담화, 연속핵담화 모두 평균 약 30% 정도씩 사용하고 있으며

3) 사죄담화를 구성하는 하위담화는 핵담화, 연속핵담화, 교섭담화이지만 본 연구의 장면설정상 전치담화와 패닉담화도 출현하므로 이들 하위담화를 넣어서 전체적인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정확한 추출결과로 사료됨.

4) 한국남자대학생(이하, KM(Korean Male), 한국여자대학생(이하, KF(Korean Female), 일본남자대학생(이하, JM(Japanese Male), 일본여자대학생(이하, JF(Japanese Female))

KMF에 비해 연속핵담화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3.2. 분석

3.2.1. 한일남자대학생의 사죄담화의 전개유형

<표4>와 <표5>는 한일남자대학생의 사죄담화의 전개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며, <회화1>과 <회화2>는 이와 같은 전개유형의 특징이 상호작용의 대화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표4> 한국남자대학생의 사죄담화를 구성하는 하위담화의 전개유형

회화번호	사죄담화를 구성하는 하위담화의 전개
회화1	전치▶ 패닉▶ 교섭▶ 핵▶ 교섭▶ 핵▶ 교섭
회화2	전치▶ 패닉▶ 교섭▶ 핵
회화3	전치▶ 패닉▶ 교섭▶ 핵▶ 교섭▶ 핵
회화4	전치▶ 패닉▶ 교섭▶ 핵▶ 교섭▶
회화5	전치▶ 패닉▶ 교섭 《핵담화 없음》
회화6	전치▶ 패닉▶ 교섭▶ 핵▶ 교섭▶ 핵
회화7	전치▶ 패닉▶ 교섭▶ 핵▶ 교섭▶ 핵▶ 교섭▶ 핵
회화8	전치▶ 패닉▶ 교섭▶ 핵▶ 교섭▶ 핵
회화9	전치▶ 패닉▶ 교섭▶ 핵▶ 교섭▶ 핵
회화10	전치▶ 패닉▶ 핵▶ 교섭▶ 핵
회화11	전치▶ 패닉▶ <u>연속핵(6번)</u>
회화12	전치▶ 패닉▶ 핵▶ 교섭▶ 핵

<표4>의 KM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전개유형은 전치담화와 패닉담화 다음에 ‘교섭담화▶핵담화(연속핵담화)’ 순으로 전개되는 담화(회화1, 2, 3, 4, 6, 7, 8, 9)로 67%(8/12)를 차지하고, 그리고 ‘핵담화▶교섭담화’ 순으로 전개되는 담화(회화10, 12)로 17%(2/12)로 나타났으며, ‘연속핵담화’만 나타난 담화(회화11)는 8%(1/12), ‘핵담화’가 없이 교섭담화만으로 전개된 담화(회화5)는 8%(1/12)이다. KM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상황에서 먼저 교섭담화를 통해 상황을 판단한 후 ‘사죄표현’이 들어간 핵담화를 사용하는 경향이 다른 연구대상자들에 비해 많이 나타났고, 특히 ‘사죄표현’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담

화인 ‘연속핵담화’를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KM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단 교섭담화를 통해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에 사죄표현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회화1> 신체적 피해상황에서 나타나는 한국남자대학생의 사죄담화의 특징⁵⁾

라인 번호	화자	발화내용	사죄담화
1	KM18	형, 그거 뭐야?	전치 담화
2	KM18	나는 커피 잘 안 마셔가지고, 잘, 마시는 것만 마시니까.	
27	KM17	아[↑][종이컵이 쓰러지는 소리].	패닉 담화
28	KM18	앗[↑].	
29	KM17	야, 야, 안 데었냐?.	
30	KM18	앗, 앓, 뜨거워, 씨.	
31	KM17	야, 야, 야, 이거 저 봐봐.	교섭 담화
32	KM18	아아아, 야, 괜찮아, 괜찮아.	
33	KM17	아, 야, 야, 휴지, 휴지.	
34	KM18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5	KM17	잠깐만, 나 휴지, 휴지, 야, 기다려[어딘가로 이동하는 소리].	
39	KM18	나 화장실 가면 괜찮을 거 같애.	
43	KM18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핵 담화
52	KM17	아이, 야, 씨, 미안하다 , 야, 이거.	
53	KM18	아이, 괜찮아.	
54	KM17	야, 따갑냐?.	교섭 담화
55	KM18	따갑지.	
56	KM18	참고 있는 건데, 아이, <어쩔 수 없지 뭐>{<}. <야, 줌, 아, 줌>{>}야, 병원가자 한번.	
57	KM17	<야, 줌, 아, 줌>{>}야, 병원가자 한번.	
65	KM17	아, 미안해 .	핵 담화
66	KM17	나, 나 음료수라도 하나 사 줄게.	
67	KM17	아, 미안하다 .	
71	KM18	아니야, 괜찮아.	

라인번호 3-26, 36-38, 40-42, 44-51, 58-64, 68-70 생략

5) 이하 <회화1, 2, 3, 4>는 논문 지면의 한계로 인해 분석범위에 들지 않거나, 감탄사, 간투사, 반복 발화 등은 생략함.

<회화1>을 보면, 사죄하는 쪽인 [KM17]과 사죄받는 쪽인 [KM18]의 전치담화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 커피에 대해 간단하게 상호작용을 한 후에 뜨거운 커피를 쏟는 신체적인 피해상황이 발생하는 패닉담화(라인번호 27-30)가 나타나고 있다. 패닉담화에서 KM17은 KM18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발언을 하고 KM18은 “뜨거워, 씨(라인번호30)”라고 하면서 “씨”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라인번호 31~43에 걸쳐서 휴지로 닦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통해 신체적인 피해상황을 수습해 보려는 교섭담화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나서, “미안하다(라인번호52)”라는 ‘사죄표현’을 사용하는 핵담화가 나타나고 있다. KM17의 사죄에 대해 KM18은 “괜찮아(라인번호53)”라고 하면서 사죄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다시 라인번호 54~57에 걸쳐서 상태를 확인하는 교섭담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KM18은 “참고 있는 건데, 아이, <어쩔 수 없지 뭐>{<}.”라고 사죄는 받아들지만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음에 대한 불만은 표명하고 있다. 그러자 KM17은 병원에 가자며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마지막 라인번호65~71에서 KM17의 사죄와 “음료수라도 하나 사 줄게(라인번호66)”라는 피해보상 발언과 KM18의 “아니야, 괜찮아. (라인번호71)”라는 사죄를 받아들이는 응답발화가 나타나면서 대화는 마무리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아래의 <표6>의 일본남자대학생의 전개유형은 KM에 비해 대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5> 일본남자대학생의 사죄담화를 구성하는 하위담화의 전개유형

회화번호	사죄담화를 구성하는 하위담화의 전개
회화1	전치 ▶ 패닉 ▶ <u>연속핵(5번)</u>
회화2	전치 ▶ 패닉 ▶ 핵 ▶ 교섭 ▶ 핵 ▶ 교섭 ▶ 핵 ▶ 교섭 ▶ 핵
회화3	전치 ▶ 패닉 ▶ 핵 ▶ 교섭
회화4	전치 ▶ 패닉 ▶ 교섭 ▶ 핵
회화5	전치 ▶ <u>패닉(사죄)</u> ▶ 교섭
회화6	전치 ▶ <u>패닉(사죄)</u> ▶ <u>연속핵(8번)</u>
회화7	전치 ▶ 패닉 ▶ <u>연속핵(8번)</u>
회화8	전치 ▶ <u>패닉(사죄)</u> ▶ <u>연속핵(13번)</u>
회화9	전치 ▶ <u>패닉(사죄)</u> ▶ <u>연속핵(4번)</u>

회화10	진치▶ 패닉▶ 핵▶ 교섭
회화11	진치▶ 패닉▶ 교섭▶ <u>연속핵(5번)</u> ▶ 교섭▶ 핵▶ 교섭▶ 핵
회화12	진치▶ 패닉▶ <u>연속핵(4번)</u> ▶ 교섭▶ <u>연속핵(5번)</u> ▶ 교섭▶ <u>연속핵(6번)</u>

<표5>는 JM의 사죄담화를 구성하는 하위담화의 전개유형으로, 회화5, 6, 8, 9에서 ‘사죄표현’을 사용한 ‘패닉담화’가 나타났다. JM은 피해상황이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교섭담화보다 ‘사죄표현’을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이 보였다.

JM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전개유형은 진치담화와 패닉담화 다음에 ‘연속핵담화’만으로 전개되는 담화(회화1, 6, 7, 8, 9)로 42%(5/12)를 차지하고, ‘핵담화(연속핵담화)▶교섭담화’ 순으로 전개되는 담화(회화2, 3, 10, 12)로 34%(4/12)로 나타났다. ‘교섭담화▶핵담화(연속핵담화)’ 순으로 전개되는 담화(회화4, 11)가 17%(2/12), ‘핵담화’가 없이 교섭담화만으로 전개된 담화(회화5)는 8%(1/12)이지만 회화5는 패닉담화에서 ‘사죄표현’이 사용되어 JM에서 ‘사죄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담화는 없었다. 또한 KM에 비해 ‘연속핵담화’만으로 사죄담화가 구성되는 비율이 높으며, ‘교섭담화▶핵담화’로 전개되는 유형보다 ‘핵담화▶교섭담화’로 전개되는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JM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상황에서 ‘핵담화’ 또는 ‘연속핵담화’를 통해 먼저 ‘사죄표현’을 사용한 후에 ‘교섭담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작용을 이어가려는 경향을 보였다. 신체적인 피해상황에서 KM은 교섭담화 후에 핵담화를, JM은 핵담화 후에 교섭담화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일남성의 접촉상황에서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중에 오해와 마찰이 생길 것으로 추측된다.

<회화2> 신체적 피해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본남자대학생의 사죄담화의 특징

라인 番号	話者	發話内容	謝罪談話
9	JM12	この後は?来年とか。	진치 담화
10	JM11	あ、来年??。	
11	JM11	来年はどうかな、なんか。	
12	JM12	[物の音]うわっ[↑]。	패닉담화 (사죄)
13	JM11	うわ[↑], [大きな声で]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すいません。	

14	JM12	熱ち、熱ち[↑]。	연속핵 담화
15	JM11	[大きな声で]今、まじ虫が、ごめんなさい。	
18	JM11	まじ、ごめんなさい。	
19	JM12	うわ、いや。	
20	JM11	熱いすか。	
21	JM12	熱いけど、<熱いよりも>{<},,	
22	JM11	<ごめんなさい>{>}。	
23	JM12	ぬれたから、どうしよう[↑]。	
24	JM11	うわ[→]、ごめんなさい。	
25	JM12	うわ、どうしよう。	
26	JM11	うわ、最悪だ。	
27	JM12	いったん帰ろうかな。	
28	JM11	うわー、まじ申し訳ない、<ちょっと>{<}。	
29	JM12	<熱い>{>}、なんか。	
30	JM12	どうしよう、<水道、水道、水道、水道、水道>{<}。	
31	JM11	<うわ、ごめんなさい、まじ、虫いたんすよ>{>}。	
32	JM12	いや、いや、それはいいや。	
33	JM12	ちょっと待って、冷やす、冷やす、冷やす、冷やす。	
34	JM11	いやー、申し訳ない。	
40	JM12	は[→]あ、うわ[→]ー。	
41	JM11	ごめんなさい、まじで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	
42	JM12	いや、いや、いや、ま、しょうがねえわ。	
43	JM12	え、どうしようかな、いったん帰ろう。	

라인번호 1-8, 16-17, 35-39 생략

<회화2>을 보면, 사죄하는 쪽인 [JM11]과 사죄받는 쪽인 [JM12]의 전치담화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 학교스케줄에 대해 간단하게 상호작용을 한 후에 패닉담화(라인번호 12-13)가 나타나고 있다. 패닉담화에서 JM11은 JM12의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감탄사와 함께 연속적으로 4번의 사죄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라인번호 14~43에 걸쳐서 사죄표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상황확인을 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연속핵담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속핵담화에서 JM11은 10번의 사죄표현을 사용하면서 JM12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어의 사죄표현인 “ごめんなさい、すいませ

ん、申し訳ない”를, JM12의 발화에 이어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발화하고 있다. 또한 JM12는 신체적인 피해상황을 일으킨 JM11에 대해 간접적인 불만은 표명하고 있지만(熱いけど, ぬれたから, は[→]あ、うわ[→]—등), 주로 상태언급(熱ち、熱ち[↑] 등), 상황에 대한 당혹감(どうしよう[↑] 등), 사태수습(いったん帰ろうかな, 水道, 冷やす 등)의 발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라인번호 41에서 JM11의 연속적인 사죄표현에 대해 “いや、いや、いや、ま、しょうがねえわ。(라인번호 42)”를 말하면서 사죄를 받아들이고 있다.

3.2.2. 한일여자대학생의 사죄담화의 전개유형

<표6>와 <표7>는 한일여자대학생의 사죄담화의 전개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며, <회화3>과 <회화4>는 이와 같은 전개유형의 특징이 상호작용의 대화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표6> 한국여자대학생의 사죄담화를 구성하는 하위담화의 전개유형

회화번호	사죄담화를 구성하는 하위담화의 전개
회화1	전치▶ 패닉▶ <u>연속핵(4번)</u>
회화2	전치▶ 패닉▶ 교섭▶ <u>연속핵(4번)</u> ▶ 교섭▶ 핵
회화3	전치▶ 패닉▶ 핵▶ 교섭▶ <u>연속핵(4번)</u>
회화4	전치▶ 패닉▶ 교섭▶ 핵
회화5	전치▶ 패닉▶ 교섭▶ 핵▶ 교섭▶ 핵
회화6	전치▶ 패닉▶ 핵▶ 교섭▶ 핵▶ 교섭▶ 핵
회화7	전치▶ 패닉▶ 핵▶ 교섭▶ 핵▶ 교섭▶ 핵
회화8	전치▶ 패닉▶ <u>연속핵(5번)</u>
회화9	전치▶ 패닉▶ 교섭▶ 핵
회화10	전치▶ 패닉▶ 교섭▶ 핵▶ 교섭▶ 핵
회화11	전치▶ 패닉▶ 교섭 《핵담화 없음》
회화12	전치▶ 패닉▶ 핵▶ 교섭▶ 핵

<표6>의 KF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전개유형은 전치담화와 패닉담화 다음에 ‘교섭담화▶핵담화(연속핵담화)’ 순으로 전개되는 담화(회화2, 4, 5, 9, 10)로 42%(5/12)를 차지하고, 그리고 ‘핵담화▶교섭담화’ 순으로 전개되는 담화(회화

3, 6, 7, 12)로 34%(4/12)로 나타났으며, ‘연속핵담화’만 나타난 담화(회화1, 8)는 16%(2/12), ‘핵담화’가 없이 교섭담화만으로 전개된 담화(회화11)는 8%(1/12)이다. KF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상황에서 교섭담화를 통해 상황을 판단한 후 핵담화를 사용하는 경향과 핵담화를 사용한 후 교섭담화로 이어지는 담화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KM에 비해 연속핵담화를 약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KF는 신체적인 피해상황에서 교섭담화에서 핵담화로, 핵담화에서 교섭담화로 이어지는 담화를 거의 같은 비율로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화3> 신체적 피해상황에서 나타나는 한국여자대학생의 사죄담화의 특징

라인 번호	화자	발화내용	담화
1	KF03	토요일 날 「KF04이름」, 뭐지?.	전치 담화
2	KF04	「KF03 친구명」.	
31	KF03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이쿠[↑][종이컵이 쓰러지는 소리].	패닉 담화
32	KF04	앗[↑], 뜨거워.	
33	KF03	괜찮아? 어, 야,어떡해, 야, 괜찮아[↑]?	교섭 담화
34	KF04	나 좀 많이 뜨거운데.	
35	KF03	야야야, 우선 휴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36	KF04	이거 그냥 화장실 가서 물 해야 되지 않을까?.	
43	KF03	이게, 야, 미안하다 .	연속핵 담화
44	KF03	야,<많이 아파?><.>.	
45	KF04	<응. 아니면><.>.	
46	KF03	야, 보건실, 보건실 가야 된다.	
47	KF04	아, 보건실, 응.	
48	KF03	야, 미안하다 .	
49	KF03	「KF04이름」, 미안해 .	
50	KF04	아니야.	
51	KF03	미안해 , 내가 이거 뚜껑을 <열어놓고 마셔서><.>.	
52	KF0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65	KF03	많이 다쳤어? 봐봐, 봐봐.	교섭

66	KF03	별로 안 다쳤어?(<웃음>).	담화
67	KF03	많이 다쳤네[↑].	
68	KF04	아니, 아니야.	
74	KF03	야, 이거 미, 미안해.	핵 담화
75	KF04	<웃음>괜찮을 거야.	
76	KF03	미안해.	

라인번호 3-30, 37-42, 53-64, 69-73 생략

<회화3>을 보면, 사죄하는 쪽인 [KF03]과 사죄받는 쪽인 [KF04]의 전치담화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 친구에 대해 간단하게 상호작용을 한 후에 뜨거운 커피를 쏟는 신체적인 피해상황이 발생하는 패닉담화(라인번호 31-32)가 나타나고 있다. 패닉담화에서 KF03은 대화중에 신체적 피해상황을 발생시키고 KF04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라인번호 33~36에 걸쳐서 상태를 확인하고 상황을 수습하려는 상호작용을 하는 교섭담화가 나타나고 나서, “미안하다(라인번호43, 48, 49, 51)”라는 ‘사죄표현’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핵담화가 나타나고 있다. KF03의 사죄에 대해 KF04는 “아니야(라인번호50, 51)”라고 말하면서 사죄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다시 라인번호 65~68에 걸쳐서 상태를 확인하는 교섭담화가 나타나고, KF04는 “아니, 아니야(라인번호68)”라고 다시 한 번 사죄를 받아들이면서 불만을 표명하는 발화는 사용되지 않는다. 마지막 라인번호74~76에서 KF03은 사죄표현을 하고 KF04는 “괜찮을 거야(라인번호75)”라는 사죄를 받아들이는 응답발화가 나타나면서 대화는 마무리되고 있다. 아래의 <표7>은 일본여자대학생의 전개유형이다.

<표7> 일본여자대학생의 사죄담화를 구성하는 하위담화의 전개유형

회화번호	사죄담화를 구성하는 하위담화의 전개
회화1	전치▶ 패닉▶ 교섭▶ <u>연속핵(7번)</u>
회화2	전치▶ <u>패닉(사죄)</u> ▶ 교섭▶ 핵▶ 교섭▶ 핵▶ 교섭
회화3	전치▶ <u>패닉(사죄)</u> ▶ <u>연속핵(6번)</u>
회화4	전치▶ 패닉▶ <u>연속핵(5번)</u>
회화5	전치▶ 패닉▶ <u>연속핵(4번)</u> ▶ 교섭▶ <u>연속핵(5번)</u>

회화6	전치▶ 패닉▶ <u>연속핵(4번)</u>
회화7	전치▶ 패닉▶ 핵▶ 교섭▶ 핵▶ 교섭
회화8	전치▶ 패닉▶ <u>연속핵(4번)</u>
회화9	전치▶ <u>패닉(사죄)</u> ▶ 핵
회화10	전치▶ <u>패닉(사죄)</u> ▶ 교섭
회화11	전치▶ <u>패닉(사죄)</u> ▶ 핵▶ 교섭▶ 핵
회화12	전치▶ <u>패닉(사죄)</u> ▶ 핵

<표7>은 JF의 사죄담화를 구성하는 하위담화의 전개유형으로, 회화2,3,9,10,11,12에서 ‘사죄표현’을 사용한 ‘패닉담화’가 50%(6/12)나타났다. JF는 피해상황이 발생함과 동시에 ‘사죄표현’을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사용비율은 JM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JF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전개유형은 전치담화와 패닉담화 다음에 ‘연속핵담화’ 또는 ‘핵담화’만으로 전개되는 담화(회화3, 4, 6, 8, 9, 12)로 50%(6/12)를 차지하고, ‘핵담화(연속핵담화)▶교섭담화’ 순으로 전개되는 담화(회화5, 7, 11)로 25%(3/12)로 나타났으며, ‘교섭담화▶핵담화(연속핵담화)’ 순으로 전개되는 담화(회화1,2)는 17%(2/12), ‘핵담화’가 없이 교섭담화만으로 전개되는 담화(회화10)는 8%(1/12)이지만 회화10은 패닉담화에서 ‘사죄표현’이 사용되어 JM과 마찬가지로 ‘사죄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담화는 없었다. 또한 KF에 비해 ‘연속핵담화’ 또는 ‘핵담화’만으로 사죄담화가 구성되는 비율이 높으며, ‘교섭담화▶핵담화’로 전개되는 유형보다 ‘핵담화▶교섭담화’로 전개되는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JF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상황에서 ‘핵담화’ 또는 ‘연속핵담화’를 통해 먼저 ‘사죄표현’을 사용한 후에 ‘교섭담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작용을 이어가려는 경향을 보였다.

<회화4> 신체적 피해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본여자대학생의 사죄담화의 특징

라인 番号	話者	発話内容	담화
1	JF09	ミハエルはいいとして、テストが心配でしかない。	전치 담화
2	JF10	ね、過去問欲しい、過去問。	
12	JF09	まあ、いいんじゃない、で、[物の音]。	패닉 담화
13	JF10	あー、熱[↑]。	

14	JF09	えー、もう、あー、やばい、やばい、やばい、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	연속핵
15	JF09	ハンカチ、ハンカチ、ハンカチ、ハンカチ、今拭く、今、拭く、今、拭く。	담화
16	JF10	あ、でも、<コーヒーで、コーヒーで汚れちゃうよ><>。	
17	JF09	<ごめん、ごめん><>。	
23	JF09	あの、冷やそう、冷やそう、いったん冷やそう。	교섭 담화
24	JF10	大丈夫だよ<大丈夫だよ><>。	
25	JF09	<いったん冷やそう><>冷やしに【【。	
26	JF10	】】なんか今、手、冷たかった、手、冷たかった。	
30	JF09	いや、本当に、本当にごめん。	연속핵 담화
31	JF10	あー、あ、<でも、あと5分で><>,,	
32	JF09	<ごめんごめん><>ごめん、<やばくない??><>。	
33	JF10	<あと5分で><>2限始まっちゃうよ。	
34	JF09	ちよつと待って、いやいやいやいや、本当、本当、ごめん、本当、ごめん。	
40	JF09	うんうんうんうん、ごめん、ごめん、本当にごめん。	
41	JF09	[泣き声で]本当に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本当に。	
42	JF10	氷、<I need 氷><>。	
43	JF09	<あー、ごめん><>[泣き声で]まじでごめん、取りあえず。	
44	JF10	大丈夫、大丈夫、大丈夫。	
45	JF09	取りあえず、きょう、一緒に保健セン行こう、一緒に。	

라인번호 3-11, 18-22, 27-29, 35-39 생략

<회화4>을 보면, 사죄하는 쪽인 [JF09]와 사죄받는 쪽인 [JF10]의 진치담화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 시험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상호작용을 한 후에 패닉담화(라인번호 12-13)가 나타나고 있다. 패닉담화에서 JF09는 대화중에 신체적 피해상황을 발생시키고 JF10은 상태에 대해 발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라인번호 14~17에 걸쳐서 사죄표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상황확인 및 수습을 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연속핵담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속핵담화에서 JF09는 하나의 발화문에 6번의 “ごめん”이라는 사죄표현을 사용하면서 상황의 심각성(やばい)과 수습(ハンカチ)의 발화 역시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JF10은 “あ、でも、<コーヒーで、コーヒーで汚れちゃうよ><>(라인번호16)”라며 하면서 손수건으로 닦으며 더러워진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

명하고 있고, JF17은 다시 사죄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수습을 위한 발화와 JF10의 사죄를 받아들이는 발화(大丈夫だよ)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섭담화가 나타나고 있다. 교섭담화 다음에 다시 연속핵담화가 나타나는데 JF09는 JF10의 발화에 이어 일본어의 사죄표현인 “ごめん”이 1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우는 듯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사죄표현을 사용하는 JF09의 발화에 대해 JF10은 “大丈夫、大丈夫、大丈夫。(라인번호44)”를 하면서 사죄를 받아들이고 있다.

4. 나가기

본 연구는 신체적인 피해상황에서 나타나는 한일남녀대학생의 사죄담화의 전개유형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먼저 한국남자대학생은 ‘교섭담화’를 통해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핵담화’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연속적인 ‘사죄표현’은 다른 연구대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에 반해 일본남자대학생은 ‘핵담화’ 또는 ‘연속핵담화’를 통해 먼저 ‘사죄표현’을 사용한 후에 ‘교섭담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작용을 이어가려는 경향을 보이며, 한국남자대학생과는 대조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한국여자대학생은 ‘교섭담화’를 통해 상황을 판단한 후 ‘핵담화’를 사용하는 경향과 ‘핵담화’를 사용한 후 ‘교섭담화’로 이어지는 담화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한국남자대학생에 비해 ‘연속핵담화’를 약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여자대학생은 일본남자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핵담화’ 또는 ‘연속핵담화’를 통해 먼저 ‘사죄표현’을 사용한 후에 ‘교섭담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작용을 이어가려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신체적인 피해상황에서 나타나는 사죄행동의 특징을 담화레벨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하였지만 향후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발화문의 상호작용을 통한 특징도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안현정(2000) 『대인접촉행동의 한일비교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3-97.
- 정현아(2018a) 「화용론적 관점에서 본 사죄담화의 한일대조연구: 물질적·신체적·정신적 피해상황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9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205-228.
- _____ (2018b) 「화용론적 관점에서 본 사죄행동의 상호작용에 대한 한일대조-물질적·신체적·정신적 피해상황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연구』 제45호,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145-164. (DOI: <http://dx.doi.org/10.21808/KJJE.45.09>)
- _____ (2019a) 「물질적 피해상황에서 본 사죄담화의 한일대조연구-한일남녀대학생의 사용경향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연구』 제49호,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121-139. (DOI: <http://dx.doi.org/10.21808/KJJE.49.08>)
- _____ (2019b) 「물질적인 피해상황에서의 사죄행동의 한일대조-상호작용의 특징을 중심으로-」 『일본어학연구』 제62호, 한국일본어학회, pp.139-160.
- 宇佐美まゆみ(2011) 「改訂版: 基本的な文字化の原則 (Basic Transcription System for Japanese: BTSJ) 2011 年改訂版」 『多文化共生社会における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教育のための基礎的研究』 C(2)号, 東京外国語大学, pp.1-20.
- 宇佐美まゆみ, 李恩美, 鄭榮美, 金銀美(2007) 「基本的な文字化の原則 (Basic Transcription System for Japanese: BTSJ)의 한국어への応用について」 『談話研究と日本語教育の有機統合のための基礎的研究とマルチメディア教材の試作』 基盤研究B(2)研究成果報告書, pp.1-32.
- 大谷麻美(2008) 「謝罪はどのように遂行され、どのように解釈されたのか: 英語の謝罪談話のケーススタディー」 『社会言語科学会発表論文集』 第21回大会, 社会言語科学, pp.64-67.
- _____ (2013) 「謝罪とその受け入れのプロセスに見る相互行為-アメリカ英語の謝罪談話の事例研究」 『日本英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会』 第22号, 日本英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会, pp.55-68.
- 近藤富美子(2002) 「日米比較 「謝罪」 考-謝罪のあり方とその照準-」 『現代社会学』 第4号, 現代社会学会, pp.49-62.
- ボイクマン 総子・宇佐美洋(2005) 「友人間での謝罪時に用いられる語用論的方策-日本語母語話者と中国語母語話者の比較-」 『語用論研究』 第7号, 日本語用論学会, pp.31-44.
- 松原健二(2001) 「謝罪行動の日米比較-えひめ丸事故とタイヤ破裂事故-」 『松商短大論翁』 第3号, 松商短大, pp.169-187.
- メイナード, 泉子・K(1997) 『談話分析の可能性-理論・方法・日本語の表現性-』, くろしお出版, pp.1-317.
- Halliday, M.A.K. and Hasan, Ruqaiya(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安藤貞雄・多田保行・永田竜男・中川憲・高口圭軒 言語学翻訳叢書(1997) 『テキストはどのように構成されるか-言語の結束性-』, ひつじ書房, pp.59-73.)

논문 투고 일자 : 2020. 02. 29.

논문 심사 일자 : 2020. 04. 24.

게재 확정 일자 : 2020. 04. 24.

< 要 旨 >

身体的な被害状況における謝罪談話の韓日対照
－韓日男女大学生の使用傾向を中心に－

鄭賢兒

本稿は身体的な被害状況で表われる韓日男女大学生の謝罪談話の展開類型と相互作用で見られる特徴を定量的及び定性的に分析し、考察した。まず、韓国男子大学生は「交渉談話」のやりとりにより被害状況をまず判断してから「謝罪表現」が含まれる「核談話」のやりとりを使用する傾向が見られた。更に、「謝罪表現」が連続的に用いられる「連続核談話」のやりとりはあまり使用しない傾向があった。これに対し、日本男子大学生は「核談話」のやりとりや「連続核談話」のやりとりを使用してから「交渉談話」により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傾向が見られた。一方、韓国女子大学生は「交渉談話」のやりとりにより被害状況を判断してから「核談話」を使用する傾向と「核談話」を使用してから「交渉談話」のやりとりを使用する比率がほぼ同じであり、韓国男子大学生に比べ「連続核談話」を多く使用していた。日本女子大学生は日本男子大学生と同じく「核談話」や「連続核談話」のやりとりをしてから「交渉談話」により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傾向が見られた。

Comparing Apology Trends In Situations of Physical Damage i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trends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ung, Hyun-Aa

Korean male college students are found to prefer using the trend of 'core discourse' after judging damage situations by 'negotiation discourse' and less by 'successive core discourse,' which continuously uses 'apologies'. In contrast, Japanese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show the trend of continuing the interaction to solve the problem by 'negotiation discourse' after using 'apologies' first by 'core discourse' or 'successive core discourse'. Moreover, it was observed that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show almost the same rate of using 'core discourse' after judging the situation by 'negotiation discourse' and continue to use 'negotiation discourse' after using 'core discourse'; they also use slightly more 'successive core discourse' than Korean male college students.